



풍수 명인 정만인과 해인

더욱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전해지는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82년 10월 14일 저녁에 공주읍 중동에 살던 당시 77세 된 김종철이 구연한 이야기의 요지다.

이태조의 조상인 이심과 정몽주의 조상인 정감은 지리와 앞날의 일을 잘 알아서 미래를 예언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 기록한 것을 궁중에다 비장하였다. 대관들이 그 책을 한 장씩 보고 기억했다가 집에 와서 틈틈이 기록하여 두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종합하여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정감록』이 되었다.

고종 때 대원군이 “살만인(殺萬人)”이라는 구절은 원래는 “정만인(鄭萬人)을 죽이라는 것인데 잘못 읽고서는 만인(萬人)을 죽이고 말았다.” 또 그다음 장에 “비군비신(非君非臣)이 열파삼장(裂破三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대원군이 만인을 죽인 후에 소용없는 책이라고 하면서 찢어버려서 3장이 떨어져 나갔다. 그 후에 대원군이 이 책을 불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 그러나 『정감록』의 이야기가 순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이다.

『1982년 추계(秋季) 학술답사보고서 (공주지역)』 (한국학대학원, 1982)

또한 정만인이 스님이 아니라 대원군 당시에 풍수지리에 통달했던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농사꾼이었던 정만인(鄭萬人)은 실은 풍수지리에 통달한 이인이었다. 흥선군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1851년경에 정만인은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 아래에 흥선군의 부친인 남연군(南延君) 이구(李球, ? - 1822)의 묘를 쓸 터를 잡아준다. 이 자리는 2대에 걸쳐 황제가 날 자리라고 정만인이 확인한다. 과연 이장(移葬)한 다음 1852년에 흥선군 이하응에게 둘째 아들인 명복(命福)이 태어났고, 그가 철종(哲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흥선군은 비로소 대원군(大院君)에 봉해진다. 대원군은 자미원(紫微垣)이라는 명당도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나, 정만인은 백 년 뒤에나 사용할 자리라고 거절한다.



흥선대원군

한국의 보물, 해인<43>

거듭되는 대원군의 요청을 빠져나갈 묘안으로 정만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한다. “자미원은 천하에 하나뿐인 명혈(名穴)로서 지금 쓸 시기가 아닙니다만, 해인(海印)을 가져가면 벼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인은 이 우주의 보물로서 산을 무너뜨리고, 강물을 멈추게 하며, 바다의 군함이며 온갖 동물들도 그 영력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해인이 해인사(海印寺)의 장경각(藏經閣)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찾게 되면 자미원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이윽고 해인사로 간 정만인은 경비하는 군사들을 따돌리고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손석우, 『터』(1993)



남연군 묘소

한편 지금도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소 이장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暉應)의 부친 남연군(南延君)의 묘소는 처음에 안성(安城) 청룡산(靑龍山)에 있었다. 조선 현종(憲宗) 15년(1849) 어느 날, 흥선은 성묘(省墓)하기 위해 청룡산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산 입구에 이르니, 남루한 남의(衲衣)를 걸친 한 스님이 길을 가로질러 막고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흥선이 보니 보통 스님과는 다른, 특이한 이승(異僧) 같았다. 그래서 흥선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니, 스님은 산천의 풍수지리에 매우 밝은 분이였다.

흥선이 “산천의 묘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발복(發福)할 수 있는 장소로 이장을 하고자 합니다. 스님이 좋은 뒷자리를 보아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후사(厚嗣)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내 일찍이 한 곳을 보아둔 곳이 있는데, 그곳은 후손에 임금이 날 자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스님은 흥선을 데리고 덕산(德山) 고을 가야동(伽椰洞)으로 갔다.

약속한 날, 흥선이 선천의 관을 운반해 그곳으로 가니, 스님은 미리 와서 거기에 있던 낡은 절의 법당에 불을 질러 태우고 있었다. 법당이 타고나니, 오직 구리부처 하나만 타지 않고 남자, 스님은 쇠망치로 그 구리부처를 부셔서 골짜기에 땅을 파고 묻었다. 그런 다음에 지정한 자리에 묘를 써서 봉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3년 후 임자(壬子, 1852)년에, 흥선은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 후 계해(癸亥, 1863)년에 철종(哲宗)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붕어(崩御)하니, 흥선의 둘째 아들은 12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고종(高宗) 임금이다. 이에 흥선은 대원군의 자리에 올라 섭정(攝政)하면서, 마침내 큰 세력을 행사하였다.

흥선이 국권(國權)을 잡고 세력을 행사하니, 스님은 흥선의 곁에서 제반 대소사의 자문에 응했다. 이 스님의 이름이 정만인(鄭萬人)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 온 왜승(倭僧)이라는 설과 또 서양에서 건너온 양승(洋僧)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흥선대원군이 세력을 얻은 후에 하루는 스님에게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히니, 이때 스님은 “내 소원은 해인사(海印寺)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인판(印版)해 출간(出刊)하는 일입니다.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 경판(經板)을 모두 밖으로 들어내어 책으로 찍어내는 작업을 하게 허락해주시지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흥선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곧 명령을 내려 팔만대장경 경판을 모두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 먹물을 묻혀 종이에 찍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판각(板刻)에서 경판을 모두 끌어내게 되니, 건물의 바닥이 드러났다.

경판이 모두 밖으로 나오니, 정만인은 경판이 놓였던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해인사에 처음 경판을 보관할 당시, 가장 중심 건물의 바닥에 ‘해인(海印)’이라는 보물을 묻어놓았었는데, 스님은 그 보물을 파내기 위한 술책으로 흥선대원군에게 경판의 인쇄를 제의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경판이 모두 밖으로 나오니, 스님은 바닥을 파서 보물인 해인을 꺼낸 다음, 흙쳐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해인’은 그것을 가지게 되면神通造化(神通造化)를 부릴 수 있는 보배였는데, 이것이 언제 해인사에 들어와 묻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판은 신라(新羅) 지장왕(智藏王) 때 바다를 건너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설에는 ‘해인’이 묻혀 있었을 당시에는 판각 건물에 새가 배설물로 더럽히는 일도 없었고 거미가 줄을 치지도 않았는데, 그 스님이 ‘해인’을 흙쳐 간 이후로는 새가 모퉁이 더럽히고 거미가 줄을 쳐서 어지럽혔다고 말한다.

필자 소개: 김탁 박사님은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증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와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2019), 『정감록과 격암유록』(2021), 『증산사상과 한국종교』(2022), 『시루와 배』(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하시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님의 글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풍수 명인 정만인과 해인

더욱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전해지는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82년 10월 14일 저녁에 공주읍 중동에 살던 당시 77세 된 김종철이 구연한 이야기의 요지다.

이태조의 조상인 이심과 정몽주의 조상인 정감은 지리와 앞날의 일을 잘 알아서 미래를 예언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 기록한 것을 궁중에다 비장하였다. 대관들이 그 책을 한 장씩 보고 기억했다가 집에 와서 틈틈이 기록하여 두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종합하여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정감록』이 되었다.

고종 때 대원군이 “살만인(殺萬人)”이라는 구절은 원래는 “정만인(鄭萬人)을 죽이라는 것인데 잘못 읽고서는 만인(萬人)을 죽이고 말았다.” 또 그다음 장에 “비군비신(非君非臣)이 열파삼장(裂破三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대원군이 만인을 죽인 후에 소용없는 책이라고 하면서 찢어버려서 3장이 떨어져 나갔다. 그 후에 대원군이 이 책을 불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 그러나 『정감록』의 이야기가 순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이다.

- 김현룡, 『한국인 이야기 7 - 우리 조상들의 풍수 명당 이야기』(2001)

위의 이야기에서는 해인설화에서 해인이 해인사 장경각의 팔만대장경 경판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내용과는 달리 장경각 바닥에 비장(秘藏)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15회》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이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秘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처님 시대에 와서는 모든 중생이 해탈하여 이 세상 자체가 극락세계로 이루어질 것을 뜻한다.

또한 미륵부처님 시대에는 모든 부처의 신력이 와서 며칠간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국토가 회복되어 영원무궁토록 부처님의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 구절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겁(劫)이라고 하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미지(未知)의 비유를 통하여 모든 중생을 구원할 미륵여래의 출현을 알리면서 한편 그것을 숨겨야 했던 석가세존의 그 깊은 영적(靈的) 사정을 짐작할 수가 있다.

범화경에 보면 겁이 끝날 때에 지상에 극락세계(極樂世界)가 도래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겁이 끝나는 것은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여 대겁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그때에 불이 탄다는 것은 대겁이 다 타서 그 업(業)이 모두 멸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새로운 신천신지(新天新地)가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범화경 권 5 (法華經 卷 五)》

衆生見劫盡 大火所燒時 我此土安隱 天人常充滿 增生健 집진 대 화소소시 아차도안은 천인상충만 중생들이 겁이 다 끝나고 큰 불이 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 땅을 안은(安隱)케 하여 하늘의 사람이 언제나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서 큰 불(火)이 탄다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업(業)을 태우는 것을 말한다.



개운조사께서 도장산 심원사(道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天(동천)”

園林諸堂閣 種種寶莊嚴 寶樹多花果 衆生所於樂 원림제당각 중종보장엄 보수다화과 중생소어락 정원 수품의 여러 집에는 갖가지 보석으로 장엄하였고, 보배나무와 많은 꽃과 과실이 있는데 중생들은 즐겁게 노닌다.

꿈에 그리던 극락세계의 모습이다.

... 미륵부처님은 우담화(優曇花)와 같아서 삼천 년만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신다. ...

화엄경(華嚴經)에는 여러 보살(菩薩)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며, 또한 그들이 서로 문답(問答)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흔히 말하기를 화엄경은 석가 세존께서 성도(成道) 후 처음 21일 동안에 설한 경이라 한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제자가 있을 리도 없고, 오직 석가세존께서 선정(禪定)에 들어서 보고 겪었던 것을 여러 보살들의 이름을 빌어 자

출현하는데 천년에서부터 만년 사이에 출현한다.

十千年後 名現諸神通 成熟衆生 十三年後 名現諸神通 成熟衆生 十三年後 名現諸神通 成熟衆生

九千年後 得清淨眼 八千年後 悉得自知諸業果 九千年後 得清淨眼 八千年後 悉得自知諸業果

如是言 千年至其中 知三千年後 名三聖明燈 悉能現見一切如來諸本事海 如是言 千年至其中 知三千年後 名三聖明燈 悉能現見一切如來諸本事海

이와 같이 천년까지 말하는 중에 삼천년 후에는 삼세(과거, 현재, 미래)에 불을 밝혀 이름을 내는데, 일체여래의 근본의 일인 해인(海印)을 능히 나타내어 보여준다.

次知七日後 佛堂出現 次知七日後 佛堂出現 次知七日後 佛堂出現

여기서 7일은 7년으로 풀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화엄경 말미에 기록하기를 기경일월연제(經日月年載)라 하여 일과 월은 년으로 적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천년에서부터 만년 사이에 나타나신다고 한 다음, 만년 후, 9천년 후, 8천년 후의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나서 갑자기 쪽 건너뛰어서 삼천년 후에 나타날 일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지삼천년후 불당출현(知三千年後 佛堂出現), 삼천년 후에 마땅히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을 알았고 하였듯이 미륵부처님은 석가세존 이후 삼천년만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8천년이나 9천년의 일은 모두 삼천년 후를 이끌기 위함이고 백락의 핵심은 삼천년에 있었던 것이다.

《열반경 권 2 (涅槃經 卷 二)》

優曇花 三千年開化 佛如優曇花 優曇화 삼천년개화 불여우담화 優曇화는 삼천년마다 피는데 부처님은 우담화와 같다.

우담화라는 꽃이 있는데 이 역시 불교의 용어로서 영적인 말이다. 우담화는 삼천년마다 핀다고 했는데 이는 미래세에 미륵부처님이 삼천년만에 출현하실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신 비유이다.

삼천년 후에는 삼세에 불을 밝힌다고 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환하게 안다는 말인데 완전히 해탈에 이르렀고 서서서 그와 같이 될 수 있겠는가? 불문(佛門)에 전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출가하여 도를 통하면 9대(代)가 모두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이 바로 이와 상통하는 말이다. 대각을 이루사 미륵부처님이 나오시니 어찌 과거 미래인들 밝히 드러나지 않겠는가! (계속)*

(계속)*